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미디어본부 방송콘텐츠진흥팀 한성돈 팀장 (061) 350-1401

배포 : 안전경영지원단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최근수 주임 (061) 350-1325

과기정통부 K-다큐멘터리 발굴·지원 플랫폼 “2024년 K-DOCS(케이-닥스)” 수상작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이하 ‘KCA’),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EBS’)가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K-DOCS(Korea DOCumentarieS) 국내 투자설명회’가 지난 23일(금) K-DOCS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 지난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진행된 K-DOCS 국내 투자설명회는 기획개발 피치(K-Pitch Fresh), 제작단계 피치(K-Pitch Prime), 하이닥스 피치(Hi-DOCS Pitch), EBS 커미셔닝 피치(EBS Commissioning Pitch) 4개의 피치 프로그램을 통해 총 29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 중 총 19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어 시상하였다.

<K-피치 프라임>

고품질 하이엔드 장편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제작단계 피치 프로그램

-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으로, 제작단계에 있는 장편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제작단계 피치(K-Pitch Prime)’에는 총 6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 먼저, K-Project에서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해나가는 이야기를 다룬 마민지 감독의 <가족의 증명>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박혁지 감독의 <넬리스의 숲>과 이일하 감독의 <호루몽>이 최우수상에, 이승준 감독의 <지금 얘기해도 돼요?>이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 그리고, 한국 및 아시아 관련 소재를 다루는 A-project에서는 한일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양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라는 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히로야마 박 감독의 <수국>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이 중 K-Project 대상인 <가족의 증명>과 A-project 최우수상작인 <수국>은 각 1억원과 5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오는 11월 개최되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영화제(이하 'IDFA')와 연계한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K-피치 프레시>

기획단계의 중·장편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피치 프로그램

- 기획단계에 있는 중·장편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기획개발 피치 (K-Pitch Fresh)'에서는 총 11편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이 중 1980~1990년대 한국의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김일란 감독의 <마리네>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김나정 감독의 <솔직히, 프랭크>와 강호준 감독의 <희미해지는 희망>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최지혜 감독의 <정님>, 강진선 감독의 <동림, 향안>이 선정되었다.
- K-피치 프레시에서 선정된 총 5편의 작품은 최대 5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IDFA와 연계한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하이독스 피치>

한국과 아시아에 관한 다양한 시선을 스크린으로 가져올 크리에이티브 장편 다큐멘터리 지원하는 피치 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후원으로 진행되는 '하이독스(Hi-DOCS) 피치'는 러프컷 단계의 장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K-Project와 GA-Project 부문별 인터스트리 초이스상 2편을 선정하여 각 3천만원, 2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 하이독스 피치의 K-Project에는 조세영 감독의 <K-Number>와 유소영 감독의 <공순이>가 선정되었고, GA-Project에는 천둥난 감독의 <Whispers in May>와 하미드 졸파가리 감독의 <Qashqai Tribe : Once Upon a Time in Shiraz>가 선정되었다.

<EBS 커미셔닝 피치>

방송용 중편 다큐멘터리 지원하는 피치 프로그램

- EBS 다큐프라임에 방영될 방송용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EBS 커미셔닝 피치'는 총 4편을 선정하여 각 1천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 EBS 커미셔닝 피치의 프라임 초이스상에는 이여진 감독의 <바람의 빛깔>, 성승택 감독의 <어머니의 가게부>, 사자드 이마니 감독의 <Highness and Excellency>, 왕시우퐁 감독의 <The Whisper of Sunlight>가 선정되었다.
- KCA 이상훈 원장은 “과기정통부의 다큐멘터리 통합지원 플랫폼 K-DOCS를 통해 K-다큐멘터리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K-Pitch Prime 부문

구분	시상내역	사업자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K-Project	대상	쌍마픽처스	가족의 증명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유품 정리 중 입양과 관련된 쪽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
	최우수상	(주)하이하버 픽처스	넬리스의 숲	 아르덴 숲에 나타난 스크리떼가 나무를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목재운반 일을 멈추지 않은 넬리스 가족들의 이야기
	최우수상	익스포스 필름	호루몽	 재일코리안 3세 인권운동가이자 여성 사업가인 신숙옥과 그녀의 어머니, 할머니를 거슬러 자이니치 100년의 한 멋진 현대사
	우수상	블루버드 픽처스	지금 얘기해도 돼요?	 갈 곳 없는 10대 소녀들을 위한 장기쉼터 로템의 집. 소년재판을 받은 불안하고 우울한 소녀들의 아우성
A-Project	최우수상	아남네시스 필름	수국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녀. 일제강점기와 역사를 배우고는 자신을 버린 후 잃어버린 책임감과 상처, 엄마에 대한 마음을 찾는다
	우수상	브리딩 필름즈	비커밍 킴	 독일 여자 수잔나와 한국 남자 김정래 첫 눈에 반해 영원을 약속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해체의 위기 앞에 놓인다!

□ K-Pitch Fresh 부문

시상내역	사업자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대상	연분홍프로덕션	마리네	비수술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인 수영이 1990년대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이름을 찾아가는 이야기
최우수상	시소픽처스	솔직히 프랭크	유명인들의 영매이자 연애 상담 전문가 프랭크 안드류. 과거의 트라우마 사로잡혀 영혼의 짝을 만나길 기대하는 이야기
최우수상	(주)콘텐츠나무	희미해지는 희망	비정규직 연출자 자신과 이재학 PD의 투쟁과 죽음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우수상	최지혜	정님	43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모를 찾아가며 밝혀지는 가족의 비밀과 그 이야기
우수상	리즈웰	동림,향안	일제강점기. 시인 이상과 화가 김환기 두 남자의 사랑을 받은 변동림의 사랑과 예술

□ Hi-Docs Pitch 부문

구분	시상내역	감독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K-Projctet	인더스트리 초이스상	조세영	K-Number	6.25 전쟁 이후 20만 명이 넘는 한국 아동은 K-Number(입양기관의 아동분류표식)가 붙여진 채 해외로 입양되었다. 성인이 된 해외입양인은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잘못된 서류와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입양기관으로 인해 그 여정은 쉽지 않다. 본 다큐는 해외입양인과 한국인을 한데 다루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려 한다.
	인더스트리 초이스상	유소영	공순이	'코다(CODA), 공순이, 막노동, 낙태, 이혼' 등 공순이의 삶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의 여성 서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공순이는 세상이 자신에게 덧씌운 틀을 가볍게 웃어넘기면서 굳건하게 삶을 이어가는 특유의 긍정적인 힘으로 삶을 살아낸다. 영화 <공순이>는 땀 흘려 노동하며 한 가정을 꾸려가는 공순이의 삶을 쫓는다.
GA-Project	인더스트리 초이스상	천동난	Whispers in May	14살의 칭화가 첫 월경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을 그린다. 칭화가 소녀 시절에 작별을 고하는 과정 속 젊음의 탄성과 정신을 포착해낸다.
	인더스트리 초이스상	하미드 즐파가리	Qashqai Tribe: Once Upon a Time in Shiraz	유목민의 유산과 그 자손들 분투의 서사. 도둑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도시 개발로 인해 가려진 잃어버린 이주 경로를 찾아나간다.

□ EBS Commissioning Pitch 부문

시상내역	감독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프라임 초이스상	이여진	바람의 빛깔	"색깔을 잃어버린 나의 세계에...할아버지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예술가 손녀가 괴짜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마법 같은 성장기
프라임 초이스상	성승택	어머니의 가계부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가 쓰신 가계부를 나는 발견한다. 48년간의 기록과 잊혀 가는 기억 사이에서 어머니가 가계부를 쓴 이유와 여성으로 사는 삶을 기록하려고 한다.
프라임 초이스상	사자드 이마니	Highness and Excellency	이란의 한 엄격한 마을, 불임 부부 라힘과 할리마는 20년 동안 간절히 원하던 아기를 갖기 위해 사회적 통념을 깨게 된다.
프라임 초이스상	웁시우퐁	The Whisper of Sunlight	홍콩의 어느 14제곱미터 남짓한 아파트. 3대에 걸친 여성들이 죽음과 맞서 싸우며, 중국 가정의 여성들에게 평생토록 씩씩한 굴레를 드러낸다.